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다녀와서

화학과 조진웅([jwjo903@postech.ac.kr](mailto:jwjo903@postech.ac.kr))

저는 화학과 12학번 조진웅입니다. 저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1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UC Berkeley에서 단기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다른 분들께도 UC Berkeley로 단기유학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기 위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단기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 미국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할 일, 그리고 제 미국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 단기 유학 전 준비사항

단기 유학을 UC Berkeley로 가고 싶다면 먼저 토플 점수가 필요합니다. UC Berkeley extension에서는 IBT기준 90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플이라는 영어시험이 영어 초보자들에게는 만만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2달 정도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토플 점수를 얻게 되면, 학점기준만 충족된다면 UC Berkeley로 가는 단기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유학생으로 선발 되면, 국제협력팀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데로 현지 학교와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I-20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I-20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갈 준비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저에게는 처음 해보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분명히 혼자 해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서류 작업이 완료되기 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 해야 하는데요, 비행기 표는 출국 3달 정도 전에 예매하면 싼 값에 예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예매를 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하여 진행하여 싼값에 예매하였습니다.

모든 필수적인 서류가 준비 되면, 제가 추천 드리는 것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행하려면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운전임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몇 차례 운전을 하며 여행을 다녔습니다.

의복이나 먹을 것은 모두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옷이나 음식을 한국에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 미국 생활 적응하기

처음 공항에 도착하면 휴대전화도 안 터지고, 말도 잘 안 통하여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당황하여 첫 날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택시를 타지 말고, 사실 택시 같은 Uber (휴대폰 앱으로 이용 가능)나 바트(지하

철)로 버클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택시를 탔는데, 매우 비싼 가격에 버클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의 날씨는 여름에도 20도 내외 정도로 덥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위를 잘 느끼신다면 첫날에 입을 수 있도록 긴 옷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버클리에 도착하면, 예약한 임시숙소나 미리 계약해둔 집, 기숙사에 짐을 놓고 바로 계좌를 개설하러 가시면 됩니다. 계좌는 Telegraph avenue에 있는 Bank of America에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과 비자, 1-20만 있으면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BoA는 미국 어디든 지점이 있고, 서비스가 훌륭합니다. 저 역시 이 은행을 이용하였는데요, 한번 카드 정보 유출로 계좌에서 돈이 임의로 빠져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인 저에게도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시길 바랍니다. Shattack Avenue에 가면 T-mobile, Verizon, AT&T가 모두 있는데,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Verizon이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르며, T-mobile이 가장 느리고 가장 싸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려면 집이나 기숙사를 구해야 하는데요, 저는 I-house를 추천합니다. 물론 I-house는 약간 비쌉니다. (약 7000\$/semester)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식사도 해결이 가능하며, 친구를 사귀기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그냥 집을 구하여 사는 것도 좋습니다. 집 중에서도 Berk와 같은 사설 기숙사 형태는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버클리에서의 일상 생활

버클리의 생활은 아주 즐겁습니다. 겨울에 약 3~4주를 제외하고는 항상 따뜻하고, 시원하며, 맑은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녀도 되고, 한겨울에도 바람막이 정도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부여행을 할 것이 아니라면 무거운 옷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활기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캠퍼스도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도 많은 도시입니다.

버클리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는데, 그 경험들의 주된 경로는 I-house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I-house 기숙사에 살게 되면,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밥을 혼자 먹고 있어도 처음 보는 외국인 친구가 다가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열린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러한 분위기가 당황스러웠으나, 며칠만 지나니 저도 모르는 친구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 생활을 하면 한국인 친구들도 필요한데요, I-house 에는 많은 한국인 교환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난 교환학생 친구, 형, 누나들과 1년간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I house는 미국인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스페인, 브라질,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I house 에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offee hour인데요, 이 동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coffee time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MT와 같은 retreat, 근교로의 short trip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 중 host family program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일반 가정과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인도계 미국인 가정과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파티, 추수감사절 파티, Super bowl 시청 등에 초대되어 미국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버클리에는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I house 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하였으나,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는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국음식, 인도음식, 멕시코음식, 심지어 엘살바도르 음식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구글이나 Yelp에 검색하면 어떤 식당이 유명한지 알 수 있으니 검색을 한 후에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클리 근처에는 한식당도 많습니다. 버클리 근처의 오클랜드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어서 한식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처음으로 영어권 국가에 가본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인 한국말로 물어보면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우리가 하는 영어에 귀를 기울여 주고 이해하려고 해 줍니다. 특히, 버클리는 여러 인종이 모이는 곳이기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영어 실력 또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다 보면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어에 대해서는 버클리 생활 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버클리 캠퍼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Telegraph Avenue 끝에 버클리의 정문인 Sather gate가 있으며, 거기로 들어가면 캠퍼스가 시작됩니다. 버클리 캠퍼스는 언덕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큰 타워인 Sather Tower 위쪽, 즉 동쪽에 화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면 오른쪽에 넓은 잔디밭인 Memorial Glade 와 도서관이 있고 왼쪽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쪽 서쪽으로 내려가면 시내와 Bart 정류장으로 이어집니다.

버클리에도 가 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버클리에서 가보면 좋은 곳 5곳을 뽑아보겠습니다.

#### 1. Big C

커다란 C자가 써져 있는 언덕 위의 공간으로 금문교로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보는 야경 역시 아주 멋있습니다.

#### 2. Berkeley Botanic Garden

대학교의 식물원으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산책로도 잘 정비 되어있고, 버클리 학생들에게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휴식장소입니다.

#### 3. Sather Tower

버클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여기서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 만 전체가 보입니다. 항상 보인다고 해서 안가고 미루다가 버클리를 떠나기 이틀 전에 가 보았는데 상당히 멋있는 장소입니다.

#### 4. Berkeley Marina

버클리 항구 앞의 작은 공원 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바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잘 보이고, 바비큐 시설도 있어서 피크닉 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 5. Indian rock

예전에 인디언들이 만들었다는 바위인데,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만 전경이 잘 보입니다. 가는 길에 Berkeley rose garden도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한번 갔다 오면 좋습니다.

## 여행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문화를 느끼고, 대자연을 경험하는 여행을 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저는 시간과 자금의 문제로 인하여 동부 여행은 못하고, 서부에서만 여행을 했으나, 아직도 가보

고 싶은 곳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근거리 여행지와 원거리 여행지로 나누어 몇 가지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 근거리

### 1.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는 제 미국 생활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 가장 멋진 곳입니다. 버클리에서 시내버스로 40분이면 갈 수 있는 바다와 도시가 잘 어우러져 있고, 그 유명한 금문교가 있는 곳입니다. 금문교까지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을 두 번이나 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고, 금문교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Pire 39에서 보는 바다사자와 바다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 Coit Tower 나 Twin peaks 에서 보는 샌프란시스코의 전경과 야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갈 때마다 건너는 Bay Bridge 역시 대단한 광경입니다. 또한, china town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중국음식도 있고, Ghirardelli Square에서 맛볼 수 있는 초콜릿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히피, 동성애자 등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면모를 느낄 수 있으니 버클리로 가게 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2. California state route 1

캘리포니아의 해안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여 Monterey, Big Sur, Santa Cruz, Half Moon Bay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모든 도시가 좋은 해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바다 빛깔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도로변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엄청난 색깔의 바다와 수평선, 햇살이 어우러진 광경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고래, 물개, 바다사자 등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을 관찰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여행하는 것 역시 하고 하고 또 하고 싶은 여행입니다.

### 3. Napa valley

나파 밸리는 와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와인을 마시러 가는 곳이지만 저는 나이가 되지 않아서 와인을 마시는 것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포도밭이 매우 아름다웠고, 햇살이 따가워서 이 광경이 더 멋있었습니다. 또한 각 와이너리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방문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를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여행 방법입니다.

### 4. Muir woods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높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으로, 좋은 공기를 쉼으로써 삼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높은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특이한 광경이며, 근처에 해변도 있어서 휴가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 5. Point Reyes

샌프란시스코 위쪽의 자연보호구역인데, 이곳 역시 해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근처의

토레이 만에서 먹는 굴 구이가 아주 별미입니다. 등대도 볼 수 있는데, 깎아지르는 절벽에 등대가 서있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 6. Stanford

버클리 근교의 명문대로, 솔직히 버클리보다 캠퍼스가 훨씬 예뻐요. 지중해에 놀러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캠퍼스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 원거리

#### 1. Yellowstone National Park

제가 가장 멀리 여행을 간 곳인데, Salt lake City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4시간 동안 차를 또 타야 갈 수 있는 먼 곳입니다. 화산지형이 펼쳐진 곳으로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갔는데도 매우 추워서 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간헐천들이 널려있고, 교과서에서만 보던形形色색의 온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옐로스톤 폭포에 가면 거대하고 높은 폭포를 감상할 수 있고, 계곡 역시 굉장히 웅장합니다. 정상에 옐로스톤 호수는 백두산 천지와 비슷한 호수로, 제가 갔을 때는 반쯤 얼어있어서 한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곳곳에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딜 가도 웅장하고, 신기한 국립공원이었습니. 또한, 미국의 시골 풍경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5월까지도 눈으로 인해 폐쇄되는 곳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년설이 있는 Great Teton 국립공원과 모르몬교의 성지인 Salt lake city 관광 역시 추천할 만한 코스입니다.

#### 2. Yosemite National Park

버클리에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국립공원으로, 웅장한 규모의 기암괴석과 폭포, 맑은 물, 울창한 숲이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Glacial point 에서 보는 요세미티의 전경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광경입니다. 여러 하이킹 코스도 있어서 자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 5~7월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Death Valley National Park

광활한 사막이 펼쳐진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으로 라스베가스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땅이 있고, 소금 사막도 펼쳐져 있습니다.形形色색의 암석이 펼쳐진 곳도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기온이 50도 까지 올라가니, 여름은 피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4. Grand Canyon National Park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하나로, 천 미터가 넘는 높이의 규모의 계곡이 있습니다. 콜로라도강이 아래에 흐르고 있고, 어디서 보던지 예술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버스 투어를 했지만, 비행기 투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San Diego

아름다운 해변과 도시가 어우러진 곳으로, 휴양지로 안성맞춤입니다. 멕시코와 가까워서 멕

시코에도 잠시 다녀올 수 있고, 멕시코 문화도 많이 물어있습니다. 샌 디에고의 해변은 미국에서 본 해변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6. Las Vegas

환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특색 있는 호텔이 있고, 호텔에서 하는 쇼만 보더라도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도시입니다. 저는 나이가 되지 않아 못했지만,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조금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 7. Los Angeles

할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 랜드 등의 오락시설이 한데 모여있는 도시로, 방문해서 구경할 만 합니다. 특히 코리안타운의 음식은 한국의 맛과 거의 일치하므로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 방문하면 좋습니다.

#### 8. Lake Tahoe

버클리에서 4시간쯤 떨어져 있는 서울시와 비슷한 크기의 호수로, 호수 빛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카약 등의 water sports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도 열리니, 겨울에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학업

버클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수업도 많고, 수업의 질도 좋습니다. 특히 화학과 학생이라면, 대학원 레벨의 수준 높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1학기

#### 1. Instrumental Methods in Analytical Chemistry, CHEM 105, 4 Unit, Ke Xu

우리학교 기기분석 과목으로, 실험과목이 함께 있습니다. 화학 분석에 사용되는 기계의 작동원리 등을 배우고, 그 기기를 직접 화학 분석에 사용합니다. 내용이 그리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영어로 보고서를 써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번의 실험이 포함되어 있고,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 2. Physical Chemistry Lab, CHEM 125, 3 Unit, Stephan Leon

우리학교 물리화학실험에 대응되는 과목으로 원래는 우리학교보다 커리큘럼이 쉬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담당교수님이 바뀌어 저 때부터는 꽤나 요구하는 것이 많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총 6번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3번의 실험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중 한번은 science나 nature 의 저널 형식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oral presentation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 보고서와 발표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해서 상당히 힘든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어려운

만큼 힘들지만, 하고 나면 배우는 것은 많은 과목입니다.

3. Chemical Fundamentals, CHEM 200, 1 Unit, Robert Bergman  
Reaction Mechanisms와 연결되는 과목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 Reaction Mechanisms, CHEM 260, 2 Unit, Robert Bergman  
유기화학을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과목으로, 대학원 레벨의 과목입니다. 유기 화학의 메커니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화학에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물리화학의 원리를 도입하여 배우는 과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에게 필수과목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노력이 많이 드는 만큼,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5. Introduction to Bonding Theory, CHEM 250A, 1 Unit, Jeffery Long  
Group theory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무기화학에서 배웠던 이론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을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습니다.
6. Coordination Chemistry, CHEM 251A, 1 Unit, Richard Andersen  
무기화학에서 group theory를 기반으로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고 원리를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 2학기

1. Special Laboratory Study, CHEM 196, 2 Unit, Paul Alivisatos  
우리학교 연구참여 과목에 대응되는 과목입니다. 저는 나노화학 분야의 권위자이신 Paul Alivisatos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학기 동안 연구 활동을 하였는데, 연구참여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한국인 박사님과 같이 연구하기로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구실 분위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높은 수준의 연구를 보다 보니,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또한 거기서 만난 한국인 박사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진로에 대한 결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경험입니다.  
연구참여 자리를 잡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요, 그러므로 연구참여를 하고 싶다면, 교수님께 메일을 드릴 때에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2학기의 연구참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첫 학기에 수업들은 교수님께 부탁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Heterocyclic chemistry, CHEM 214, 3 Unit, Thomas Maimone  
Heterocyclic compound에 대한 합성을 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약학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약학과 많이 연결이 되는 과목입니다. 복잡한 유기화학 메커니즘들을 배우게 되고, 상당히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3. Metals in Organic Chemistry, CHEM 262, 1 Unit, John Hartwig

Organometallics 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다양한 유기금속 반응에 대해서 원리와 메커니즘을 배우게 됩니다.

4. Materials Chemistry 1, CHEM 253A, 1 Unit, Omar Yaghi  
MOF 분야의 권위자인 Omar Yaghi 교수님의 수업으로, MOF와 여러 무기 물질들에 대한 결정구조, 결합 등을 배우게 됩니다.
5. Materials Chemistry 2, CHEM 253B, 1 Unit, Omar Yaghi  
위 과목과 연결되는 과목입니다.
6. War and Peace: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1914, HISTORY 162B, 4 Unit, Amanda Behm  
수업 하나가 갑자기 폐강되어서 급하게 넣은 과목으로, 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공대생인 저에게는 상당히 힘든 과목이었는데요, 한 학기에 2번의 에세이를 쓸 것을 요구하고, 2번의 시험에서도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과목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고, 힘들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공대생에게는 잘 맞지 않는 과목 같습니다.

단기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jwjo903@postech.ac.kr](mailto:jwjo903@postech.ac.kr)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버클리에서 2014년 12월 26일